

2023 문화 화제

〈5〉 ‘아르브뤼(Art Brut)’ 작가 터전 소화누리 ‘뜬새미술관’



여성정신장애인 시설 소화누리가 운영하는 뜬새미술관은 '아르브뤼(Art Brut)' 작가들의 터전이다.

그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위로 건네다

광주 '소화누리'는 여성정신장애인 시설이다. 11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아주 작은 미술관이 있다.

소화누리 뜬새미술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작가들은 '아르브뤼(Art Brut)' 작가로 불린다.

소화누리 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 창작 활동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생활관 벽에 붙여놓은 그림, 보물처럼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 꺼내놓은 그림들을 발견한 직원들은 그들의 재능을 활용한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날것 그대로 순수한 미술 '아르브뤼' 정신질환장애인가가 예술 창작 미술수업·전시·'뜬새미술 공모전' 윤희미 작가 싱가포르비엔날레 참여

지난해에는 아르브뤼 작가 3명이 '나의 이름은 나라샤'를 주제로 열리는 '싱가포르비엔날레(2023년 3월 19일까지)'에 참여하는 경사도 있었다.

싱가포르 비엔날레 참가는 지난해 '붉은방(김효나·김인경)'과 이희혜의 기획으로 북서서울미술관에서 열렸던 발달장애·정신장애 작가 기획전 '같은 너무나 길고 좋은 조그맣기 때문에'가 계기가 됐다.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역임했던 최빛나 싱가포르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이 윤미에 작가 등이 참여한 이 전시를 감명깊게 관람, 참여가 결정됐다.

작가들은 개막일 즈음 초청을 받아 싱가포르 비엔날레 현장을 찾았다. 주최측은 영상과 인터뷰 촬영에 나섰고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됐다.

아르브뤼 작가들은 주홍 작가가 참여해 꾸준히 진행하는 미술 수업과 그림그리기를 통해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 작가의 작품에는 자신들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어 깊은 울림을 주고 또 다른 위로 건네다. 피아니스트 문용은 나정숙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무대의상을 만들어 입고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가님들의 역량에 놀라곤 합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며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전체가 바뀌었다며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을 배우면서 항상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초창기부터 소화누리 아르브뤼 작가들의 활동을 돕고 있는 이경도씨는 "앞으로 작가님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싱가포르비엔날레에 참여한 광주의 아르브뤼 작가들이 현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권있진(Zine)' 지역문화 다양성 담다

광주문화재단, 문화담론지 발간... 26일 북토크

지역문화 다양성과 고유성을 다채롭게 담아낼 지역의 문화담론지가 발간됐다.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하고 발간한 광주문화담론지 '권있진(Zine)'(사진)이 그것.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분권'과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21세기 지역 문화정책과 미래전략 수립 등을 상징한 담론지를 발간했다. 이와 아울러 장간호 북콘서트를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제호 '권있진(Zine)'은 전라도 말 '권있다'와 매거진(Magazine)에서 따온 '진'을 잇대어 붙였다. 편집장은 책과 생활 '신현장' 대표가 맡았다.

커버스토리로 기후위기, 여성·소수자, 장애 등의 시대담론과 함께 광주예술계 지형변화를 담았다.

독립기획자 최하얀은 '1989 지방 여성 노동자 항쟁'을 주제로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했으며 큐레이터 장한별은 '광주풀리×로컬식경: 현대의 장소로 재발견된 쿠폴리'를 통해 지역 내 잊혀져



가서 공간을 재 탐구했다. 송승포도농원 1년차 가짜농부 임아영은 '예술하다 자빠졌을까봐- 낫 빠지고 낫 빠진 두 예술가와 밥 한끼 했습시다' 편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예술가의 삶도 들려준다.

한편 '권있진(Zine)' 창간호는 청년 예술가, 기획자, 비평가, 활동가 등 총 22명의 필진이 참여했으며 총 10명(단체 포함)의 인터뷰이가 참여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ESG 경영방침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컨셉으로 준비됐다. 참여신청은 시어송라이터 라태양의 작문 공연도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지구의 시간' 전에서 선보인 '물의 순환' (ACC 제공)

ACC 공연·전시서 잇단 수상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동아연극상 희곡상 전시 '지구의 시간' 2022 앤어워드 그랑프리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라장 이강현)이 새해 벽두부터 공연과 전시 분야에서 잇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CC는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이 제59회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옹·복합 콘텐츠 전시 '지구의 시간'이 2022 앤어워드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개의 수상으로 ACC는 창·제작 문화발전소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ACC가 국립극단과 공동 제작한 연극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은 코로나시대와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환

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코로나를 분기로 시대적 공연의 장을 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앤어워드'는 국내 최대 디지털 분야 상으로 한 해 동안 디지털 산업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해 총 63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한다. '지구의 시간'은 디지털 산업 발전 기여도에서 심사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인류세 시대,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에 놓인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로 표현해 각광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남문화재단, 2월말까지 접수

전남문화재단이 전남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재단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전남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2023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받는다.

공모는 총 6개 사업으로 행복전남 문화지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꼬마라크 문화예술학교, 문화 소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유아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나뉜다. 총 지원액은 15억 7000만 원이다.

이런 사업에서는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 연차별 지원규모 변경과 함께 '꼬마라크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꼬마라크 문화예술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평일과 주말까지 운영 기간을 확대했다. 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심이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사 배치 및 관리로 사업 내용을 개선시켰다.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교육 대상을 만 3-5세에서 0-7세로 확대했으며 연수 프로그램 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특화 학교 조성을 위한 '문화소외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신설했다. 신청은 2월 20일 시작된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국립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밴드 '리디안팩토리'



팀파니스트 오미정

다양한 장르 음악... 합창으로 여는 새해

광주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2월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합창단이 2023년 첫 공연으로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

공연은 2월 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미정 팀파니스트와 성영옥 모듬북 연주자, 김보라 플루티스트, 밴드 리디안팩토리와 협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겨운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다양한 장르의 합창 음악이 선보여진다.

먼저 '봄 기지개'를 주제로 칼 쟈킨스의 '까마', '나그네집 알야', '손뼉'이 무대의 분위기를 달구고 '정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김효근의 '첫사랑',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정애연의 '별을 깨는 밤' 등을 선보인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자들의 우정 행진' 파트에서는 '형제여, 계속 노래하라', '결연한 의지의 남자들', '축배의 노래' 등 남성성이 가진 힘있는 합창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지는 '화려한 오페라 아리아'에서는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 나의 모든 것',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진취적 기상' 파트에서는 우효원의 '아! 대한민국'의 '견근감리'에 맞춰 오미정의 팀파니 연주와 성영옥의 모듬북 연주로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의식 속 현대인들의 불안

신황제 초대전, 2월 2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현대인들의 불안을 원색적 색감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신황제 작가 초대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2023 LAYER'라는 주제가 함의하듯 작가는 무의식에 잠재돼 있는 추상적 감정을 두꺼운 텍스처(texture)로 표현한다. 구체적 묘사가 아닌 색면으로만 여러 텍스처 이미지를 겹겹이 쌓는 방식이 이채롭다. 작가는 나약한 인간의 심리상태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무의식을 보여준다.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모두 20점. 'Layer' 시리즈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보다는 원색적이고 선명한 색채를 덧칠해 지은 것처럼 표현돼 있다. 밝은 이미지에 마무리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줌



'2023 LAYER'

으로써 '불안'이라는 원초적 감정을 극대화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